

꿈과 자유 노래하는 청춘축제... 빛으로 꾸민 '감동의 200분'

미리보는 개막식 하이라이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감동의 200분'

3일 오후 7시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이 남아 있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개막식'이 열린다.

광주U대회 개막식은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라는 대회를 슬로건 아래 'U are Shining'(젊음이 미래의 빛이다)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오후 7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시작을 선포하는 공식행사(오후 7시30분), 문화공연1(오후 7시40분), 선수단 입장(오후 7시50분), 문화공연2(오후 9시15분), 공식행사2(오후 9시30분), 문화공연3(오후 9시50분) 순으로 이어지며 하이라이트인 성화점화는 밤 10시10분에 진행된다.

박명성 총감독, 김태욱 총연출 등 화려한 연출진들이 광주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과 꾸미는 개회식의 관련 포인트를 소개한다.

▷**호남 문화예술인들이 만드는 무대**=개회식과 폐회식의 전체 이야기는 담양 출신 소설가 문순태 선생이 1990년대 펴낸 '걸어서 하늘까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소매치기와 대학생 남녀들이 얽혀 빛어내는 사랑과 꿈의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당시 16부작 드라마로까지 제작됐다.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은 이번 개·폐회식 미술총감독을 맡았고, 광주시립무용단을 창단한 박금자 선생은 개회식 안무총감독을, 김미숙부리 한국무용단 단장인 김미숙 조선대 교수와 광주현대무용단 단장인 임지형 조선대 교수가 각각 안무감독으로 개·폐회식을 만든다.

이 밖에도 광주시립무용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국극단, 조선대 무용학과,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조선대 태권도학과 등이 참여한다.

▷**청춘 스타들이 청춘에게**=문화행사3에서는 대중문화의 주역들이 함께한다. 배우 주원, 가수 유노윤호, 국악소녀 송소

문순태·박금자·임지형...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꾸며

주원·유노윤호·송소희

문화공연 주인공으로



주원

희가 주인공이다. 주원은 안무와 노래로 오늘을 살고 있는 자유로운 젊은이의 모습과 고통받는 젊음을 표현한다. 유노윤호는 즐거운 모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뮤지컬 지컬엔하이더에서 하이드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노윤호



송소희

송소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물로 등장, 진정한 '미래의 빛'의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송소희는 마지막에 주원과 함께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준다. 이 밖에도 사이니를 비롯해 K-POP 가수들이 출연한다.

▷**한글을 재구성한 중앙무대**=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은 음과 양, 동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징이기도 한 태극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의 중심에서 젊음의 상징이 집약됐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메인미디어센터(MMC) 개관식이 지난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윤장현·김형식 조직위 공동위원장과 김윤석 사무총장, 유병진 대한대학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샘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당놀이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음과 양은 그라운드 좌우 보조무대에 표현되고, 중앙무대는 젊음의 가치를 담아낸 크고 작은 큐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수한 언어인 한글을 조형학적으로 재구성해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무대 자체가 움직이며 한글의 다양한 변화를 전파한다.

보조 무대와 중앙 무대 사이에는 8000여명의 선수단이 착석, 관람객과 세계의 선수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함으로써 일방적인 연출이 아닌 소통하는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준다.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한국의 신명나는 민요를 EDM(Electronic Dance Music)으로 변환한 연주에 맞춰 입장하는 147개국 선수단은 문화공연2에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만나게 된다.

학문과 신체를 단련하며 배움을 펼쳤던 모습이 세계인에게 전파되고, 이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들이 소개된다. 과거 우리의 젊음이 만들었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현대 젊은이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관람객과 선수단의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

특히 새롭게 재편곡된 아리랑을 전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부르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다.

김태욱 총연출은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고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힘을 현대 대중문화를 절묘하게 융합해 세계문화의 트렌드를 엿 볼 수 있는 개회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경인기자 kki@

"한국 전통 마당놀이와 서양 현대 뮤지컬의 융합 무대"

박명성 개막식 총감독

해남 출신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한국 공연예술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린다. '맘마이아', '아이다' 등 흥행작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그는 지난주부터 광주에 머물며 리허설을 총지휘하고 있다. 개막식 출연자만 2200여명에 달하는 메가드라마 이벤트를 책임진 그는 120여명의 스태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호남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전통문화인 고싸움, 광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무등산의 서석대, 화합의 피날레를 장식할 강강술래 등 광주·전남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준비중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미래 콘텐츠가 결합돼



뮤지컬이 융합된 무대"라고 소개했다.

"한류스타들이 퍼레이드식으로 들고 나는 다른 대회와 달리 뚜렷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개막식이 전개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뮤지컬 배우 주원과 미래 국악의 아이콘인 송소희가 주인공을 맡아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또 배우들이 하는

로 솟구치는 등 테크니컬적인 부분도 흥미를 자아낼 것입니다."

박 총감독은 개·폐회식에 호남이 낳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도 의미있는 일로 꼽았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린 어떤 행사보다 규모가 큰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쓰신 문순태 선생님이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선생, 안무를 맡은 박금자 선생, 해남 출신 김성종 기술 감독 등 우리 지역이 낳은 예술가들과 서울에서 수많은 작업들을 해온 베테랑 스태프들이 힘을 모아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박 총감독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도움도 개·폐회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막식 기수단 '황영조와 16명의 아이들'

<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

광주U대회 개막식 기수단으로 '황영조와 아이들'이 참석한다.

오는 7월3일 오후 7시부터 200분간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회식 행사에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와 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 16명이 태극기를 들고 맨 앞에 선다. 이들은 유니버시아드의 과거와 미래다.

마라톤어 황영조는 U대회를 통해 발돋워 한국스포츠 최고 스타다. 그는 U대회 이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1991년 영국 셰필드U대회에서 한국 마라톤 사상 첫 국제 무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한국에 사상 첫 마라톤 금메달을 안기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황영조와 함께 기수단을 형성한 16명의 아이들은 미래 광주체육을 이룰 제주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다. 광주 수영의 대들보 남상아, 괴력의 역사 손현호·정찬혁, 신공 김정훈·박연경·김소희, 에어로빅 송창섭 등이 태극기와 대회를 들고 입장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개막식 행사

행사명	시간	행사내용
식전행사	오후 7시~7시30분	관람객 레크리에이션, 풍물공연
공식행사1	오후 7시30분~40분	국기 입장 및 개양, 귀빈 입장, 개회식 시작 선포
문화공연1	오후 7시40분~50분	'빛의 탄생, 젊음의 탄생' 주제 공연
선수단 입장	오후 7시50분~9시15분	147개국 8000여명 선수단 입장
문화공연2	오후 9시15분~30분	'과거 청년들의 배움, 문명의 발전' 주제 공연
공식행사2	오후 9시30분~50분	대회기 입장 및 개양, 환영사, 개회사, 대회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문화공연3	오후 9시50분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 전달을 위한 종합공연(주원·송소희·유노윤호 출연)
성화점화	밤 10시10분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ia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문의처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